

투데이

폐막 3개월 여수세계박람회장 가보니

철거는 속전속결, 사후활용은 지지부진

영구보존 시설도 문닫고 전시관 곳곳 폐자재 수북 조직위 정산업무만 집중 전담 기구부터 설립해야



지난 9일 철거 작업이 한창인 여수세계박람회장 곳곳에 건축 폐자재가 수북이 쌓여 있다. /여수=임문택기자 mtlim@

지난 10일 오전 10시 여수시 덕충동 여수세계박람회장. 박람회 기간 동안 800여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북적거렸던 이곳 박람회장은 쓸쓸한 초겨울 날씨만큼이나 쓸쓸했다. 지난 8월 12일 폐막 후 3개월 동안, 기업관 등 일부 전시관들은 철거됐고 한국관이나 국제관, 엑스포홀 등지에서는 내부 철거작업이 한창이었다. 남해의 아름다운 풍경과 멋지게 어우러졌던 그늘막도 모두 뜯겨고, 전시관 철거 과정에 나온 폐자재가 군데군데 쌓여 있었다.

박람회장이 폐막 후 공사장으로 변한 것은 정부가 부지 매각 방침을 정해 95%가량의 박람회 부지·시설을 2년 내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람회장의 기업관(7개), 어린이극장, 국제기구관, 지자체관, 부채관(3개)은 철거되며 주제관, 한국관, 빅오, 국제관(EDG 포함), 스카이다워는 영구 보존된다.

폐막 이후 시작된 철거작업은 현재 80% 이상 진행됐으며, 영구 보존 시설들도 대부분 작업을 멈춰 박람회장은 더욱 쓸쓸해졌다. 빅오 등 일부 특화시설에 대한 재개발이 검토됐으나, 운영 및 관리비 문제로 가동이 중

단됐다. 한화에서 운영하는 아쿠아리움만 재개발과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남해안 크루즈 관광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박람회장내 크루즈 부두도 연간 운영비 24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폐쇄됐다. 무엇보다도 전시관 철거는 계획대로 이뤄지지만 부지 매각을 골자로 하는 사후활용 방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개발사업 제안 공모'를 통해 박람회장 부지를 매입해 사후활용 사업을 맡게 될 업체를 선별

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마땅한 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자칫 '장기적으로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 한 관계자는 "부지·시설 일괄 매각할 계획이지만 사업제안자가 일괄 매입이 곤란할 경우, 시설에 한하여 입차(30년 기준) 제안도 가능하다"면서 "현재 국내외 요트 인구가 늘면서 마리나 구역(엘블호빌 주변)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다른 부지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전

남도, 여수시 등의 지자체 과건 공무원들도 최근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는 등 박람회 조직위도 대폭 축소됐고, 사후활용을 맡아 진행할 별도 기구 설립도 늦어지고 있다. 현재 박람회 조직위는 정산 업무에 집중하고 있고, 사후활용은 부지매각에만 매달리고 있다. 여수시 한 관계자는 "대전엑스포 사후활용이 10여 년간 중단된 교훈을 불호필 주변)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다른 부지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 /여수=임문택기자 mtlim@

나로호 부품 15일 도착... 빨라야 23일께 재발사

항우연 "일정 유추 불가능... 부품 입고가 우선"

지난달 발사가 중단된 나로호의 교체 부품이 곧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11일 "문제가 생긴 어댑터 블록의 중앙 체결부의 부품 통관 절차를 밟고 있으며, 빠르면 15일쯤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품이 들어오면 나로호 1단에 장착하고 실험하는데 하루가 소요되고 이후에는 발사단계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또 발사 일주일 전, 발사 예정일

을 확정·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빠르면 나로호 재발사는 23~24일 가능하다고 밝혔다.

러시아 현지 언론들도 오는 15일께 나로호 발사 일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최근 자체 우주·로켓 분야 소식통을 인용해 나로호 발사 날짜가 오는 15일께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항우연 관계자는 "러시아에서 문 제없이 부품이 도착해야 모든 일정을

할 수 있고, 이 부품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야 최종 발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발사 날짜를 유추할 수 없다"면서 "발사 예정기간 이전에 재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일까지 부품이 도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로호는 애초 지난달 26일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가 제공한 로켓 1단과 발사대 사이에서 헬륨 가스가 새어나오는 문제가 발견되면서 발사가 중단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특검, 靑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금주초 집행할 듯... 靑 강제수사 사상 초유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제껏 특검은 물론 검찰 등 어떤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어, 특검팀이 실제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 전례가 없는 만큼 압수수색 영장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특검팀은 이번 주초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는 14일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날짜는 12, 13일 정도뿐이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지난 9일 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을 15일간 연장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승인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반드시 강제적으로 증거물을 압수해 올 필요는 없기 때문에 특검팀이 현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되 일의 제출 형식을 빌려 필요한 자료를 받아 올 가능성도 있다. 국가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의 출입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앞서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 대해 부지매입자금 6억원을 빌리기 위해 청와대 컴퓨터로 작성했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을 넘겨 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원본파일을 찾을 수 없다며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U대회 다목적체육관 공사입찰 또 유찰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광주U대회) 다목적 체육관 공사 입찰이 또 유찰됐다.

광주시는 "지난 9일 광주U대회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공사비 915억원)입찰등록을 마감한 결과, 접수한 업체가 한 곳도 없어 자동유찰됐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두 번째 입찰도 유찰됨에 따라 자격기준을 완화해 다시 공고할 방침이다. 시가 총납이 등 기준을 완화해 세 번째 공고를 하게 될 경우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재대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표기자 lucky@

7대 지방공공요금 인상 제도 광주시 재정 인센티브 43억

광주시는 "올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7대 지방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43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7대 지방공공요금에는 상·하수도·쓰레기봉투·지하철·시내버스·택시·정화조 청소 요금이 포함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9일 7대 지방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를 평가해 총 500억원의 예산을 차등 지원했으며, 광주시가 가장 많은 43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광주는 지난 10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지역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로 7대 특·광역시중 최저로 나타났다. /박진표기자 lucky@

본사 인사

▲金俊錫(서부취재본부 목포주재) (11월 12일자)

주승용 위원장 '해양박람회특구' 특별법 발의

"박람회 사후활용 주제, 정부·공공법인 적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민주당·여수 을) 위원장이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법적 지원도 뒤따르고 있다. 또 사후활용 주제도 정부 또는 공공법인체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관련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 위원장 등 의원 38명이 서명한 개정안은 국토위·법사위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여수세계박람회진흥재단 설립과 기능, 정부지원 역할, 박람회 기념사업과 박람회장 개발사업 내용, 해양박람회특구 지정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박람회 투자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도 담겨 있어, 관련 투

자를 이끌어내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박람회장 일대를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해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법인세·소득세·재산세·취득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원활한 사후활용을 위한 시민·학계의 논의도 활발하다. 지난 9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엑스포 이후 여수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열린 KTX경제포럼에서 사후활용 주제에 대한 다

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전남발전연구원 신동훈 연구위원은 "여수박람회 시설유지와 사후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총괄적 운영·관리가 필요한 만큼 관리주체도 정부가 주도해 정부 또는 공공법인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후활용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고 경제성만을 고려해 특정시설만 존치시키는 것은 박람회의 상징성을 훼손시키는 일"이라며 "기존 박람회 시설들을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복합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국회 예결위 "F1 운영비 반영 노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원내외 최고영입 F1경주장을 방문해 "전남도가 건의한 대회 운영비 240억원이 2013년 국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 예결위 최재성·이윤석·양승조 위원들은 지난 9일 F1경주장을 방문해 박준영 전남지사를 면담하고 경주장 체험과 주요시설을 시찰했다. 이날 박 지사는 예결위원들에게 F1대회 운영비 등 2013년 국비 지원이

필요한 전남도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예결위 심의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원들은 "전남도정 현안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F1대회 운영비 240억원이 F1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3학년도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여러분의 뜻 다 이룬 꿈을 전남대 산업대학원에서 이뤘다. 주경이득! 직장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주·2회, PM7-11)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프로그램 제공. 전형일정. 모집학과.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매.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개인 출장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부고. 소모석유(주) 신태호 명예회장께서 2012년 11월 10일 오후 3시 28분에 별세 하셨습니다. 장례식장: 서울아산병원 20호. 발인일: 2012년 11월 13일. 발인시: 2012년 11월 13일. 장성복 이사거리 영선재. 전남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선영. 2012년 11월 12일. 유족: 박이, 김, 김, 김, 김, 김. 현소유: 홍, 형, 재, 승, 승. 촬영: 희, 석, 중, 혁, 철, 중.